

“국제적인 도메인 체계의 급격한 변화 대비 필요할 때”



1.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하는 역할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역할은 국가도메인 관리기관으로서 안정적인 주소관리체제를 정립하고, 인터넷 주소의 원활한 할당과 관리, 인터넷 관련 국익 보호활동, 기타 인터넷 이용 촉진을 위한 활동 등을 통해 국내 인터넷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외 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통계산출을 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화 소외계층의 통계자료를 조사하여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자합니다. 아울러,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와 도메인서비스제공업체(DSP)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인터넷주소관리활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2. 최근 급증하는 인터넷 인구로 인하여 인터넷 주소체계에 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국내 인터넷 도메인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국내 인터넷이용자수는 지난 1994년 13만 8천 여명에서 2000년 1,800만 명으로 무려 120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국내 인터넷이용자수 증가와 더불어 도메인수도 급증하여 1994년에 192개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 10월말 기준 511,003개로 무려 2,661배 증가하여 인터넷이용자 증가율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월대비 증가율을 보면, 지난 2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8월에는 도메인수가 오히려 줄어든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상반기에 전 국민적으로 열병을 앓았던 닷컴 등록열풍과 최근 한글도메인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문도메인이 주춤하는 현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도메인은 앞으로도 증가추세를 보일 것이며, 국제적인 도메인체계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 것도 매우 필요할 것입니다.

3. 최근 한글도메인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정부기관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적극적으로 개입, 법규를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한글도메인은 영문도메인과는 달리 등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시행되므로 한글도메인 등록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모든 이에게 평등한 기회를 줄 수 있고 혼란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서는 관계 전문가를 모시고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은 ▲ 한글도메인 등록은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 공공기관의 이름은 미리 보호되어야 한다 ▲ 한글도메인 시행 초기에 1증명서당 2개의 도메인이름만 허용하자 등 입니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적극적으로 개입, 법규를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서는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가장 공평하고 중립적인 등록정책으로 한글도메인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한글도메인이 '.kr' 안에서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충분한 대처방안을 마련중이나 '.com', '.net', '.tv' 등의 다국어 도메인네임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매우 고민스러운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고 국내의 도메인 신청자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계몽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4. 최근 ICANN에서 새로운 도메인 주소를 만들었는데 이에 대한 센터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응방안은?

지난 11월 16일 마리아 델리에서 7개의 새로운 gTLD 생성이후에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향후 더 많은 gTLD가 생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하여 국내 업체가 새로운 gTLD registry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센터는 이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정보제공과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5.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와 있는데, 내년 인터넷 산업의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국내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과 정보통신기술 관련 벤처기업의 역할증대, 국민들의 정보화 의지는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국내 수요창출, 창의적 인력양성 등을 통해 디지털경제의 성장기반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기회로 다가오고 있는 21세기 디지털경제시대의 핵심인 정보통신산업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비교적 경쟁력을 갖춘 편이며 경제성장에도 기여도가 크게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경제는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근간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6. 센터의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한글도메인의 등록서비스 제공을 2001년 1월 말 목표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한글도메인의 등록업무를 대행할 4개 업체를 공개적으로 선정하였고, 등록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일반 국민이 공정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글도메인은 국제 표준이 확립되기 이전에 시행하므로 시행 초기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국제 표준 제정 작업에 참여하여 한글도메인등록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7. 인터넷 국가도메인을 총괄하는 센터의 사무총장으로서 인터넷 사용시간은 하루에 얼마나 되며, 자주 가시는 사이트가 있다면?

하루 인터넷 사용시간을 몇 시간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업무 관련하여 정보를 찾기 위한 인터넷 서핑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로 실버넷운동 홈페이지(www.silvernet.ne.kr)를 자주 방문합니다.

실버넷운동은 정보화 사회의 소외계층인 55세 이상의 노인층을 대상으로 전국 100여 개의 대학이 참여하여 무료인터넷교육을 실시하는 산·학 중심의 자율적인 시민운동입니다. 실버넷교육을 받으신 노인분들이 교육을 마친 후에도 인터넷상에서 서로 친구가 되어 외로움도 달래어보고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기술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생활에 많은 도움을 얻습니다. 물론 실버넷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도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새로운 친구와 삶의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추천할 만한 사이트죠.